

# “함께 머리 맞대니 새로운 교육의 길이 보이네”

### 전남교육청, 혁신교육지구 관계자 연찬회



전남도교육청이 27일 전남교육연수원에서 혁신교육지구 관계자 연찬회를 갖고 전남의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연찬회에는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행정지원과장 등 관계자와 시·군 지자체 교육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혁신교육지구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협력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라남도교육감이 지정한 시·군을 말한다.

이날 혁신교육지구 관계자 연찬회도 시·군의 교육현안을 토론했면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의를 활성화하고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22명의 시·군 별 진행위원들의 진행이 돋보였던 이날 연찬회는 개인별 변화와 혁신 실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혁신교육지구가 추구할 가치를 선정하고 그 가치에 맞게 잘하고 있는 사업, 털어낼 사업, 개선할 사업을 선정했다. 또 혁신교육지구가 추진할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하는 순으로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의 지진한 발언

과 질문 논의가 이어져 시간가는 줄모를 정도였다.

연찬회에 참석한 교육지원청의 한 교육지원과장은 “교직에 몸담게 된 이후 처음으로 지자체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 교육사업 계획을 세우는 경험을 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해남에서 참석한 기초자치체 교육담당 공무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교육지원청의 깊은 고민 속에서 추진됨을 처음 알게 됐다.”며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용 교육감은 “여수의 행복교육지원센터, 순천의 풀뿌리자치지원센터, 곡성의 미래교육협력센터, 구례의 민간공모를 통한 교육정책팀장 임명 등 지역 교육협력사업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혁신교육지구가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학교를 혁신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전남의 마을과 학교를 활성화하는 중심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과 10월 중 시·군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혁신 실행연수를 실시하고 전남의 모든 학교에서 실행연수를 통한 새로운 소통과 협의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 광주시교육청, ‘2019 탈북학생 진로직업캠프’ 실시

### 탈북학생·학부모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에 걸쳐 탈북학생 20명과 해당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 교육장에서 2019 탈북학생 진로직업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진로직업캠프는 탈북학생의 성격적 특성과 소질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탐색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탈북학생 및 학부모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LCSJ검사를 통한 심리분석을 토대로 진로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시청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부모 자신과 자녀의 성격적 특성을 확인하고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자기 주도적 미래 설계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과 부모님이 서로의 성격적 특성을 확인하고 부모님과 함께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탐색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탈북학생 및 학부모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맞춤형 진로직업캠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글로벌 리더! 내가 좋아하는 외국어로 시작해요”

### 영암교육지원청, 외국어 말하기 대회 성료



영암교육지원청은 27일 시청각실에서 초·중학생 14팀을 대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어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고,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한국어 및 부모 모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마련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외국어 말하기 대회는 관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은 부모 모국어를, 중도입국 학생은 한국어를, 일반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역할별 교육을 해소시키고자 추진하였다.

또한, 영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지난해까지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는 국내출생 다문화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대회로 일반학

생 참여가 어려운 대회였지만 올해는 내가 좋아하는 외국어 말하기 대회로 바뀌어 많은 학생들이 자기 좋아하는 외국어를 노래, 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릴수록 장을 만들 수 있었다.

대회에 참여한 치과의사가 꿈인 한 학생은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임마의 고향인 중국에서 치과 의사가 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나임 교육장은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 구사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행복한 영암교육을 만들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 신학기 식중독 예방 학교급식 특별점검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이 28일부터 9월 6일까지 관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 신학기 초기 집중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급식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영주 교육장은 28일 급식학교를 불시에 방문해 급식시설 및 환경위생 관리여부, 원재료보관실 및 조리장 등 청결관리에 대한 지도와 식재료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순천대, 하계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성료



순천대학교는 지난 7월 22일부터 한 달간 하계방학을 이용해 전남지역 교육 소외지역 12곳에서 순천대 학생들이 참여한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를 실시했다.

한국학재단이 주관하고 전국 50개 사업시행 대학이 참여한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는 사람 중심의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자발적 참여로 나누는 등, 나눔 문화

확산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재능봉사 멘토링 캠프이다.

2011년 사업시행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 순천대학교는 한 국장학재단으로부터 7천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남 12개 지역(순천, 광양, 여수, 완도 등)의 지역아동센터 및 초·중학교에 대학생 멘토 198명을 파견했다.

캠프에 참여한 순천대 학생들은 전남지역 교육 소외계층(저소득층, 다문화, 탈북학 등)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현장체험학습, 창의력·사고 증진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전남교육청 전문적학습공동체 ‘사물놀이 기본과정’ 직무연수



전남사물놀이동아리가 2019학년도 학교급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사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강화 활성화에 나섰다.

전남사물놀이동아리는 최근 도내 유·초등 교원 13명을 대상으로 도곡중앙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특수 분야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사물놀이와 전통음악에 관심있는 교사들이 모여 공교육에

서 예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사들은 이번 사물놀이 기본과정 연수에서 ‘민요 반주와 사물놀이’라는 주제로 음악 교과서 위주의 민요 반주와 정단, 웃다리 사물놀이를 직접 연주해 보면서 현장에서 직접 우리 음악을 지도할 수 있는 실기 지도 능력을 키웠다.

정춘란 우수영초 교장은 “학습공동체를 통해 초등 음악교육의 내실화 및 교사들의 자기계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 초등 음악교육에 관심있는 교사들이 모여 공교육에

### 여수교육지원청, 학폭 예방 학부모교실 운영

여수교육지원청은 27일 전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전문번호사를 초청하여 문화가 있는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였다.

이날 학부모교실은 성악가 유환삼과 소프라노 정은신이 출연하는 힐링 콘서트와 함께 여수 관내 90개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학부모위원, 학교 및 학급 학부모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른 학부모 이해도를 높여 관계회복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김의성 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했다.

